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성경 번역

— 제임스 맥시(James A. Maxey)의 연구를 중심으로 —

방기민*

1. 들어가면서

「성경원문연구」 학술지가 출간되기 시작한 이래 다양한 성경 번역이론이 소개되어 한국의 번역자와 성서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한 번씩 대한성서공회에서 주최한 성경 번역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Korean Translation Workshop)¹⁾와 이를 위한 「성경원문연구」 특집판은 필자를 비롯한 젊은 성서학도들과 중견 학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며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이후에도 여러 성경 번역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해외 번역 논문과 국내 학자들이 집필한 논문들이 출간되었다. 필자는 「성경원문연구」 학술지가 오랜 시간 동안 성서 번역을 위해 노력한 공헌에 감사하고 싶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형식 동등성이나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내용 동등성 혹은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이론을 넘어서거나, 이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이론들은 상당히 드물게 소개된다는 점이다. 「성경원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몇몇 소수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글’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원 언어/문화를 살릴 것인가, 수용언어/문화를 살릴 것인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시간강사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quizbang@gmail.com.

1) 필자는 2005년(2차), 2007년(3차), 2009년(4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가 하는 작업이 한국과 같이 문자 해독률이 높은 사회가 생산한 ‘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라면, 기존의 원 언어/문화와 수용언어/문화 사이의 ‘글’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 낮은 문자 해독률을 가지던 사회에서 구전 전승(Oral Tradition)과 ‘말’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던, 달리 말해 읽고 들려지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 — 특히 문맹률이 높은 선교지에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 — 는 ‘글’을 ‘글’로써 옮기는 번역을 넘어서는 질문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성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으로부터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성경 번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 및 평가하려고 한다. 특히 제임스 맥시(James A. Maxey)가 제시하는 두 가지 공헌과 통찰력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 및 성경 번역 선교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번역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아직 한국 학계에 생소한 퍼포먼스 비평의 간추린 역사를 소개한다. 그 후 제임스 맥시의 성경 번역 이론의 핵심이 되는 구어와 상황화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소개한 뒤에 한국 교회 및 성경 번역에 적용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2. 기존 번역의 문제점

대부분의 신구약성경은 본래 ‘말’로 선포되고 구연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구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문자 해독률은 5-10% 이내로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문자를 읽지 못했다.²⁾ 따라서 처음에 대부분의 신구약성경은 개인의 조용한 독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말’로 구연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³⁾ 부연하면, 구약의 경우

2) 렌스키(Gerhard Lenski)의 자주 인용되는 통계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 문자를 사용할 줄 아는 지배 계급이 2퍼센트를 넘는 일은 드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219. 듀이(Joanna Dewey)는 상인이나 지배 계급을 돕는 계급(retainer)들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시에서는 5퍼센트 혹은 그 이상의 문자 해독률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Joanna Dewey,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8 (Eugene: Cascade, 2013), 6.

3)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2 (Eugene: Cascade, 2009), xii.

처음부터 왕정 역사가에 의해 짜임새 있는 글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은 구약의 몇몇 역사서,⁴⁾ 지혜학교에서 사용되었을 지혜문학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언서,⁶⁾ 시편을 비롯한 노래들,⁷⁾ 전승 단계에서의 오경⁸⁾ 등은 원래 구전으로 전승되고 구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성서학자들은 다수 성경 본문의 구연적 특성을 간과한 탓에 소리나 구연적인 특성에 초점을

-
- 4) 특히 삼상 16장-삼하 5장까지를 일컫는 말인 History of David's Rise(HDR)나 삼하 11장-왕상 2장을 일컫는 말인 Succession Narrative는 새로운 왕(다윗, 솔로몬)이 등극한 뒤 새 왕이 왕위를 차지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짜임새와 통일성이 높은, 아마도 왕정 역사가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많은 글로 추정되고 있다. HDR은 다윗이 왕의 음악가요, 개인 경호원, 군대 장관, 왕자의 친구, 왕의 사위로서 높은 왕위 계승서열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에게는 왕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블레셋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절대로 없으며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아닌 아말렉 소년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역설하는 데 주요 관심이 있다. 이는 매카터 주니어(P. Kyle McCarter, Jr.)의 표현처럼 다윗의 해명(Apology of David)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참조, P. Kyle McCarter, Jr., "The Apology of Davi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489-504.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자의 견해에 왕위 계승 이야기(Succession Narratives)는 다윗의 늙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점과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던 형들이 어떻게 자격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어린 아들이던 솔로몬이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적법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종의 솔로몬의 해명(the apology of Solomon)인 셈이다.
- 5) 지혜문학에 나오는 수많은 격언은 가족 내에서 전승되어온 이스라엘 고유의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격언집에서 빌려온 것들도 많이 있다. 지혜 학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된 것들로 처음부터 글로 적힌 책자(토판, 양피지 등)의 형태로 배포되었을 것이다. Leo G. Perdue, *Proverb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20 (Louisville: John Knox, 2000), 13-26.
- 6) William Doan and Terry Giles,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London: T & T Clark, 2005); Terry Giles and William Doan,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Religion Compass* 2:3 (2008), 273-286.
- 7) Terry Giles and William J. Doan, *Twice Used Songs: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Songs of Ancient Israel*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 2009). 시편은 구약성경에서 구연적 특징이 가장 강한 책으로서 이미 다수의 논문이 시편이나 성서 속 시가를 어떻게 퍼포먼스를 위해 번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명한 성경 번역 학술지인 *The Bible Translator*의 최근 호 중에도 다음 논문들이 있다. June F. Dickie, "Community Translation and Oral Performance of Some Praise Psalms within the Zulu Community", *The Bible Translator* 68:3 (2017), 253-268; June F. Dickie, "The Importance of Literary Rhythm When Translating Psalms for Oral Performance (in Zulu)", *The Bible Translator* 70:1 (2019), 64-81; Dan Fitzgerald, "Mediating the Apocalypse: The Potential Semiotic Effects of Translating for Spoken and Sung Performance",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31-245; Roger A. Bullard, "Looking in the Old Testament for the Epic Genre", *The Bible Translator* 64:1 (2013), 99-111.
- 8) 전승단계에서의 오경에 대한 연구는 궁켈 이후 양식비평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궁켈(Hermann Gunkel)의 창세기 속 구전전승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는 창세기 주석의 서론 부분이 최근에 번역되었다. 헤르만 궁켈, 『창세기 설화』, 진규선 역 (서울: 갑은사, 2020).

맞추기보다는 서구에서도 르네상스 시대와 인쇄술의 발달 이후에야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성서의 문예적 이해에 집중하여 주로 연구하였던 한계가 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1세기에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언어 집단들도 대부분 글보다는 말로써 의사소통해오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구어(말)가 보편적인 혹은 유일한 의사소통수단이며 어떠한 문자도 사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잘 정리된 문법체계나 사전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파송된 성경 번역가들이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성경번역선교회(GBT: Global Bible Translators), 위클리프 성경번역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국제언어학연구소(SIL International)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전통적인 성경 번역가들은 ‘성경에 대한 접근은 오직 문예적인(Literacy)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조용한 기록된 암호의 해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⁹⁾ 가지고 먼저 서구의 알파벳 또는 번역가에게 익숙한 알파벳을 가지고 문자 체계를 만들고, 서구의 문법체계를 근간으로 문법책과 사전을 만드는 작업 및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이후에야 성경 번역을 시작하곤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번역 과정 가운데 생기는 식민지화이다. 맥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성경 번역은 직접적으로는 문자 해독 교육과 복음 전도와 관련되지만, 간접적으로 식민지적 의제(“colonial agendas”)와도 관련되어 있다.¹⁰⁾ 서구의 알파벳으로 서구의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문법 체계와 사전을 만들고, 서구 선교사에 의해 문맹 퇴치 교육이 진행되고, 성경이 번역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문화적/사회적 식민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고유문화는 상실되곤 한다.¹¹⁾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더라도 번역된 성경 본문들이 구어로 주로 소통하던 언어 집단에서는 잘 읽히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¹²⁾ 구어로 소통하는 집단에게 문어는 일종의 외국어와

9)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1.

10) *Ibid.*, xi.

11) 맥시(James A. Maxey)가 지적하는 서구권의 실수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반복될 수 있다. 일부 한국인 성경 번역가들은 현지에서 한글을 가지고 문자 표기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소수민족의 한국 문화 의존도를 높이는 목적을 가짐으로써 토착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정말로 토착민들을 위한 문자를 만든다면 라틴 알파벳이나 한글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던 전통 문자,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의 여러 소수 부족들의 경우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생소한 서구 알파벳이나 한글이 아닌 이웃 나라의 문자에 익숙하다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맥시는 그가 오랫동안 일했던 카메룬의 부테 공동체(the Vuté community)에서 이러한 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 특히 구연문화가 발달한 공동체에서는 글로써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말이나 구연, 또는 노래 등의 비문자(non literacy) 매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보고되곤 한다(예: 맥시, 타메스[Elsa Tamez]). 과거에는 출판이 오직 유일한 기록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 녹화 등의 기록수단이 존재하고 저렴하게 CD, DVD, 대용량 메모리 스틱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문자로 번역해야 할 당위성이 예전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글 중심의 성경 번역을 넘어서는 말 중심의 성경 번역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퍼포먼스 비평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 번역 이론에 가장 앞서 있는 제임스 맥시의 연구를 소개하고 평가함으로써 대안적인 성경 번역을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전에 간략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의 역사를 기술하며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성서 퍼포먼스 비평의 간추린 역사¹³⁾

건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예를 들어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7-9 참고. 성경 번역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성경원문연구」 학술지에서 소개된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는 코스타리카 청각 장애자 공동체를 위한 DVD 수화 성경 번역에 대한 엘사 타메스(Elsa Tamez)의 연구를 꼽을 수 있겠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로 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해독능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들에게 한글이나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성경은 일종의 외국어 성경이기 때문이다. 표정이나 손동작의 빠르기, 크기 등을 통하여 세심한 뉘앙스의 표현이 가능한 그들의 말인 수화 영상을 통해 성경말씀이 전달될 때 비로소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참고, Elsa Tamez,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af Community”, 「성경원문연구」 20 별책 (2007), 112-119; Elsa Tamez,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Costa Rican Sign Language”, 「성경원문연구」 20 별책 (2007), 120-128; Elsa Tamez, “Sign Language, Performance, and Identity”,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58-263.

- 13) 본문에서 제시하는 미국 성서 퍼포먼스 비평의 역사와 별개로 한국에도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관련한 내용을 최근에 한국어로 소개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신약학자들이며 유지운, 정용한, 김학철, 권영주를 언급할 수 있다. 퍼포먼스 비평의 개념을 한국 학술지에 처음 소개한 한국 학자는 유지운이다. 데이빗 로즈(David M. Rhoads)의 제자인 유지운의 퍼포먼스 비평과 관련된 첫 번째 연구인 「신약논단」에 출판된 논문은 원래 내러티브 비평 연구자인 저자가 내러티브 비평에 퍼포먼스 비평이 가진 통찰력을 약간 접목하여 퍼포머티브 내러티브라는 고유의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성경은 조용한 읽기의 방법이 아닌 회중 앞에서 구연되었다는 퍼포먼스 비평의 통찰력을 제외하면 그의 전공인 내러티브 비평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경원문연구」에 출판된 서평은 퍼포먼스 비평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보여주며 퍼포먼스 비평의 선두에 있는 학자들의 논의를 명료하게 요약/평가한다. 유지운, “요한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퍼포머티브-내러티브 비평적 분석: ‘아버지’(πατήρ) 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2 (2016), 331-369; 유지운, “<서평>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지만 1980년대에 시작된 내러티브 비평과 The Bible in Ancient and Modern Media(BAMM)에 대한 연구를 하던 학자 그룹의 토론으로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데이빗 로즈(David M. Rhoads)와 토마스 부머샤인(Thomas E. Boomersshine)의 지도력 아래 1982-1983년 사이에 북미성서학회의 컨설팅 테이션(Consultation)¹⁴⁾으로 시작된 BAMM 그룹은 고대 세계의 매체 문화(media culture)뿐 아니라 20세기 후반, 더는 전통적인 문자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 시대의 매체 세계(media world)까지 고려한 성서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의 회원 중에는 성서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도 있다.¹⁵⁾

BAMM의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성서가 원래 구어로써 구연된 텍스트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라는 새로운 분과가 2006년을 기점으로 BAMM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작되었다.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매년 북미성서학회 연례 모임이 시작하기 전 날인 금요일 오후 Networking Meeting과 워크숍을 가지며, 모임의 웹사이트에는¹⁶⁾ 약 200명의 연구자 및 구연가들이 등록되어 참여할 만큼 활발한 연구 방법론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가진 전제는 성서를 말하고 듣는 문화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¹⁷⁾ 말하고 듣는 문화(oral/aural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ed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성경원문연구」 42 (2018), 200-214. 정용환의 연구가 공연 비평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마가복음 수난사를 퍼포먼스 비평을 사용해 연구하면서 한국어로 소개된 연구 중에는 가장 정밀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정용환, “마가복음의 공연 비평적 읽기 - 백부장의 고백(막 15:39)을 중심으로 -”, 「대학과 선교」 35 (2017), 131-160. 김학철은 제임스 맥시와 비슷하게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매체의 효율성이 떨어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성서 번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김학철의 논문은 퍼포먼스 비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개념을 소개하는 셈이다. 김학철, “매체 환경 변화와 성서 번역”, 「신학논단」 87 (2017), 69-92. 권영주의 논문은 퍼포먼스 비평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술 이론과 기억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퍼포먼스 비평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권영주,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구술 이론과 기억 이론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5:4 (2018), 863-899.

14) 컨설팅 테이션은 정식 분과(Section)로 등록되기 전에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년 정도 활동하는 학술 모임이다.

15) Thomas E. Boomersshine, “All Scholarship is Personal: David Rhoads and Performance Criticism”,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7:4 (2010), 281.

16) <https://www.biblicalperformancecriticism.org/index.php> (2019. 8. 15.).

17) David M. Rhoads, “Performance Criticism: an Emerging Methodology in Second Testament Studies”, *Biblical Theology Bulletin* 36:3 (2006), 118-133, 164-184.

culture)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성서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내러티브 비평과 퍼포먼스 비평의 1세대 학자인 데이빗 로즈의 대표작 *Mark as Story*를 언급할 수 있겠다. 처음에 내러티브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의 내러티브 연구를 하던 로즈는 *Mark as Story*의 1판(1982)¹⁸⁾에서 글로 쓰인 내러티브가 전체로서 어떻게 독자(Reader)와 상호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30년 뒤에 출판된 3판(2012)에서는 마가복음을 이야기 전체로 읽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마가복음을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닌 퍼포먼스의 대본으로 말하고 듣기 위한 저작(“oral/aural composition”)으로 읽으면서, 초대 교회의 청중(audience, 독자가 아님)에게 이야기가 구연되었을 때에 만들어낼 효과에 대해 다루는 장을 추가하였다.¹⁹⁾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가진 성서를 말하고 듣는 문화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은 로즈 혼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 학자들과의 관계와 토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잔 니디취(Susan Niditch)와 워너 켈버(Werner H. Kelber)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구술문화와 기록 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여 일반 학문에서 진행된 구술문화에 관한 연구를 성서학에 적용한 중요한 저작들을 남긴 학자들이다. 니디취는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구어 사회와 기록된 말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단행본을 출판하였고,²⁰⁾ 켈버는 신약 복음서의 전승과 기록과 관련하여 구어와 문어의 특성을 다루었는데,²¹⁾ 기본적으로 호메로스의 그리스 서사시를 이해하기 위해 제안된 고전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성서학에 적용시킨 것이다.²²⁾ 그 외에도 듀이(Joanna Dewey), 샐리너(Whitney Shiner), 보타(Peter Botha), 와이어(Ann Wire), 호슬리(Richard Horsley)와 같은 연구자들이 로즈와 함께 성서의 구어성(Orality)에 대해 주목하여 연구하였으며 로즈나 부머샤인과 함께 성서 퍼포먼스 비평 1세대 학자로서 연구 방법론의 토대를 쌓았다.

성서 퍼포먼스 비평 그룹으로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물은 성서 퍼포

18) David M. Rhoads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2).

19) David Rhoads, Joanna Dewey,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xi.

20) Susan Niditch, *Oral World and Written Wo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21) Werner H. Kelber, *The Oral and Written Gospel: The Hermeneutics of Speaking and Writing in the Synoptic Tradition, Mark, Paul, and Q* (Philadelphia: Fortress, 1983).

22) Peter S. Perr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urvey and Prospects”, *Religions* 10:117 (2019), 2.

먼스 비평 시리즈(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와 성서 퍼포먼스 비평적 주석의 출판이다. 로즈의 오랜 동료이자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 중 하나인 부머샤인은 “Mark, the Storyteller: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Mark’s Passion and Resurrection Narrative”²³⁾ 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에서 뮐렌버그(James Muilenburg)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 수난과 부활 이야기의 특징을 수사학적 이론을 통해 고찰하였는 다.²⁴⁾ 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 비평이 도입 및 수정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 첫 번째 퍼포먼스 비평 주석이 출판되었다.²⁵⁾ 성서 퍼포먼스 비평 주석은 성서의 전통적인 본문주석을 넘어 일종의 연극이나 영화 시나리오 및 대본과 같이 각 부분을 구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언들을 담고 있어서 성서 구연가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로즈와 부머샤인 이후 퍼포먼스 비평의 2세대 학자들로 그들의 제자들인 피터 페리(Peter S. Perry),²⁶⁾ 브릿 레슬리(Britt Leslie)²⁷⁾ 및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할 맥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맥시는 본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하는 *From Orality to Orality*의 저자일 뿐 아니라 퍼포먼스 비평을 활용한 성경 번역에 관한 한 권의 책을 편집하였고,²⁸⁾ 2015년 12월에 출판된 *The Bible Translator* 학술지의 객원 편집자(Guest Editor)로서 역할을 맡기도 하며 퍼포먼스 비평을 적용한 성경 번역을 이끌고 있다.²⁹⁾

23) Thomas E. Boomershine, “Mark, the Storyteller: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Mark’s Passion and Resurrection Narrative”,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at New York, 1974).

24) Thomas E. Boomershine, “All Scholarship is Personal”, 279-287 참조.

25) Thomas E. Boomershine, *The Messiah of Peace: A Performance-Criticism Commentary on Mark’s Passion-Resurrection Narrativ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12 (Eugene: Cascade, 2015). 그 외에도 룯기에 대한 일종의 성서 퍼포먼스 비평 주석인 Terry Giles and William J. Doan, *The Naomi Story-The Book of Ruth: From Gender to Politic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13 (Eugene: Cascade, 2016) 등이 출판되었다.

26) Peter S. Perry, *The Rhetoric of Digressions: Revelation 7:1-17 and 10:1-11:13 and Ancient Communication*, WUNT 2. Reihe 2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Peter S. Perry, *Insights from Performance Criticism*, Insights: Reading the Bible in the 21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2016).

27) Britt Leslie, *One Thing I Know: How the Blind Man of John 9 Leads an Audience toward Belief*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5).

28)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eds.,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29) 다음 저작들도 참조할 수 있다. James Maxey, “Performance Criticism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Part I: Oral Performance and New Testament Studies”, *The Bible Translator* 60:1 (2009), 37-49; James Maxey, “Performance Criticism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Part II: Challenges and Experiences”, *The Bible Translator* 60:3 (2009), 165-182;

4. 제임스 맥시의 첫 번째 강조점: 구어의 역할

제임스 맥시는 원래 루터란 성경 번역회(Lutheran Bible Translators)에 소속되어 주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20년 이상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하다가 이후에 시카고 루터란 신학교(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에서 앤토니 지틴스(Anthony Gittins), 로버트 슈라이터(Robert J. Schreiter), 마크 톰센(Mark Thomsen), 스티브 베반스(Steve Bevans)의 지도로 선교학을, 데이빗 로즈의 지도로 신약학을 복수 전공하여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그는 “Bible Translation as Contextualization: the Role of Oral Performance in New Testament and African Contexts”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논문이 큰 수정 없이 성서 퍼포먼스 비평 시리즈에서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현재는 나이다 연구소(Nida Institute for Biblical Scholarship)에서 부학장(Associate Dean)으로 재직 중이다.

맥시가 제시하는 성경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구술 문화 혹은 구어의 중요성이다. 신약성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술 문화 속에 살아갔듯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성경이 새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부족들은 구술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술 문화에서 기록된 성경을 문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구어의 형태(구연이나 노래)로 번역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더욱 효과적이며 최선의 번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활자 인쇄술이 사용되기 이전까지 성경은 조용한 독서나 무미건조한 프레젠테이션(monotone presentation)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한다면, 맥시의 견해와 같이 구연가의 구연을 통할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물론 신약성서가 주로 구술 문화 배경에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수준의 문예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³⁰⁾ 성서학계의 주류는 여전히 문예적인 특징(literary characteristics)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구전으로 선포되던 성경의 메시지가 일단 텍스트로 자리 잡은 뒤에는 구술 문화적인 특성과

James Maxe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12-215.

30) 아래 내용은 정동현(에모리대학교 신약학 Ph.D. Candidate)과의 토론과 개인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예 문화의 특징이 복잡 미묘하게 결합하여 작용했을 것이기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초기 기독교의 선포와 전승이 구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류 신약학계에서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헬레니즘 세계의 문예 문화(Hellenistic literary culture)의 범주 안에서 탐구하는 연구(예를 들어 베커[Eve-Marie Becker])는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텍스트로 자리 잡은 뒤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읽히고 해석되는 중에는 구술 문화적인 특징보다는 거룩한 기록으로서, 일점일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문자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문예적인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³¹⁾

이와 비슷하게 맥도날드(Dennis Ronald MacDonald)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위경 안드레행전 등에서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와 같은 특징들이 다수 나타남을 근거로 미메시스 비평(Mimesis criticism)을 그의 연구에 도입하였다. 맥도날드의 미메시스 비평은 신약성경의 다수 본문의 저자가 그리스 문학의 문예적인 특징에 익숙해 있으며, 그리스 문학의 양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글로 쓰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점이다.³²⁾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누가-행전은 도입부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로 기록되어 보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대부분의 복음서는 기록 이전에 복잡한 구전 전승의 단계가 있었을 것이며, 바울서신 중에 다수는 바울이 구두로 말한 편지의 내용을 받아쓴 조력자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한다는 점에서 구어와 구술적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켈버와 니디취의 앞서 언급한 저작들이 주목하는 것과 같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등의 문예 전통에서 연구되어 온 작품들 역시 구전 전승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의 초기 형태는 기원전 13세기말로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에³³⁾ 관한 구전 전승

31)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Eve-Marie Becker, *The Birth of Christian History: Memory and Time from Mark to Luke-Ac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32) Dennis Ronald MacDonald,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3) 트로이 전쟁의 연대 추정 및 고고학 유물과 문헌을 활용한 역사 재구성에 있어서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Eric H. Cline, *The Trojan Wa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Eric H. Cline,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 Turning Points in Ancient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한국인 저자들의 트로이 전쟁 연대에 관한 연구 중에는 오홍식, “트로이 전쟁과 바다의 민족들”, 『서양고대사연구』 34 (2013), 107-143 참조. 광범위한 유물 및 기록 매체를 바탕으로 기원전 13세기 말엽 동지중해 지역에 대량의 이주 현상 및 도시 파괴를 포함

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알려져있고 따라서 글을 읽지 못했을 호메로스에 의해 후대(기원전 8세기 이후)에 창작되어 강한 구어적 특징과 구전 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서 속 호메로스의 글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성서 및 다른 고대 문헌들이 지닌 구연적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맥시가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통한 성경 번역은 구연을 통한 방법을 보통 사용하지만,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Paralinguistic, Extralinguistic) 및 미디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확장성이 높다. 이 점에서 퍼포먼스를 통한 성경 번역을 하기 원하는 경우 연구해야 할 범위가 대폭 넓어지며, 혼자 번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성서 시대의 원어를 공부할 뿐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이고 처음 구연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입던 복장이 어떠한지, 어떤 몸동작을 하며, 어떤 어조로 성경의 내용을 구연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현대의 청중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 비평을 도입한 성경 번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보다는 성서공회나 여러 기독교학회들의 모임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에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겠다.

5. 제임스 맥시의 두 번째 강조점: 상황화의 중요성

맥시가 제시하는 성경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두 번째 핵심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 Inculturation)의 중요성이다. 성경 메시지의 상황화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황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시카고 지역에서 인류학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학을 발전시켰던 저명한 선교학자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상황화에 대하여 혼합주의(syncretism) 혹은 이단(heresy)의 위험성

한 문명 붕괴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이민족 침입, 기근, 화산폭발, 전반적인 국가시스템 붕괴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전 연구에서 생태해석학 연구자인 필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변화로 초래된 파급 효과들이라고 보았다. 방기민, “초기 이스라엘, 블레셋, 기후변화와 이주 - 지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의 사례”, 「지중해지역연구」 21:3 (2019), 1-33.

이 있다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³⁴⁾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상황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카고 지역의 선교학자 슈라이터의 경우 모든 신학은 어떤 정도에서든 혼합주의적(syncretistic to some degree)이라고 주장하며 상황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박하고, 상황화를 통한 지역의 신학(local theologies)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³⁵⁾

성서 이해, 신학, 성경 번역과 상황화에 관한 입장 차이는 세계 기독교 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세 가지 유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맥시는 기독교의 성서해석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것은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alez)와 도로시 쉴레(Dorothee Sölle)의 유명한 기독교의 세 가지 타입에 관한 유형론에서 통찰력을 얻은 것이다.³⁶⁾ 곤잘레스는 2세기의 세 주요 신학자와 학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신학 유형을 제시한다. (1) 첫 번째 유형(Type A)을 대표하는 신학자는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터툴리안으로서, 쉴레에 따르면 정통주의(Orthodox) 및 문자주의(literalism)에 해당하는 것이다.³⁷⁾ 터툴리안의 신학적 사유의 특징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³⁸⁾ 법률가였던 터툴리안은 성경을 법률문서와 같이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지 밝히는 증거본문들을 찾으려 했다. 그는 언어의 엄격한 의미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비유해 보면 고도의 축어역이나 문자적 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두 번째 유형(Type B)을 대표하는 신학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자 오리겐으로서, 쉴레에 따르면 자유주의(Liberalism)에 해당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은 곳으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적 진리 탐구와 도덕에 대한 관심이 오리겐의 신학 형성에 영향

34) Paul 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3 (1987), 104-112.

35) Robert J. Schreiter,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Orbis, 1985); Robert J. Schreiter, “Defining Syncretism: An Interim Repor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7:2 (1993), 50-53.

36)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38-40.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하여 맥시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하도록 제안한다. Stephen Bevans and Roger Schroeder, *Constants in Context: A Theology of Mission for Today* (Maryknoll: Orbis, 2004); Justo L. Gonzalez, *Christian Thought Revisited: Three Types of Theology*, rev. ed. (Maryknoll: Orbis, 1999); Dorothee Sölle, *Thinking about God: An Introduction to Theology* (Philadelphia: Trinity, 1990).

37) Dorothee Sölle, *Thinking about God*, 23.

38) Justo L. Gonzalez, *Christian Thought Revisited*, 6;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38 참조.

을 미쳤다. (3) 세 번째 유형(Type C)을 대표하는 학자는 안디옥 학파와 소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이레니우스이며, 쥘레에 따르면 급진적/해방(radical/liberation) 신학이다. 곤잘레스는 이 신학 유형을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신학은 플라톤 철학이나 로마법적 배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역사 사건 속 하나님의 활동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매일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신앙이 문화의 구성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⁹⁾ 곤잘레스나 쥘레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듯이 세 번째 유형은 역사 속에서 항상 환영받은 것은 아니며, 오랜 시기 동안 지하 속에 숨어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세 번째 유형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맥시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지만, 그동안 잊혀져 온 상황화를 중요시하는 세 번째 신학 유형과 이에 따른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⁴⁰⁾

상황화에 대한 맥시의 강조점과 이에 따른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분명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반적인 신학 배경을 살펴보면 상황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화에 대한 강조점을 한국 교회에서 적용할 때 조심스럽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교회에 상황화 및 토착화를 반영한 신학 정립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전반적인 성서 번역본의 전통이나 정통 신학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존의 성경 번역이 활용되기 어려운 성서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상황화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해 본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제안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수화 사용자들을 위한 DVD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경우 오늘날 훨씬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의 가격은 점점 낮아져서 성경 대부분의 영상을 한 개의 메모리 스틱 속에 보관하기에 충분하고 더 이상 DVD 수집 장으로 나누어서 만들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수화사용자들은 비 청각 장애인에 비해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그대로 번역할 수 없고,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상황화된 번역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황화는 수화사용자들을 위한 성경 번역에 필수적인 요소

39) 여기까지 신학의 세 가지 유형은 맥시(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38-40)가 곤잘레스(Justo L. Gonzalez)와 쥘레(Dorothee Sölle)의 책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정리해본 것이다.

40)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40-44.

가 될 것이다. 또 디지털 시대에 고차원적 문자 해독 능력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며 젊은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활자화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기성세대의 걱정이 큰 가운데, 역발상으로 전통적인 문자매체 성경 대신 젊은 디지털 세대의 특성과 젊은 세대의 고민과 관심사에 맞춘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구연 퍼포먼스 형태를 통한 성경 번역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⁴¹⁾ 그런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경의 메시지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번역의 매체만을 바꾸는 것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며 아마도 기성세대의 성서해석 및 고민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의 상황에 맞게 상황화된 성경 번역이 필요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성경이 원래 쓰여진 사회가 구술 문화를 가진 사회임을 재조명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제임스 맥시는 이 통찰력을 성경 번역을 위해 접목하는데 오늘날의 회중들을 위한 구술문화를 반영한 성경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큰 장점을 지닌다. 구술 문화는 현재 성경이 처음 번역되고 있는 대부분의 격오지 선교지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의 구술 문화를 훼손하면서 서구적 문화 식민지로 바꾸는 과정과 함께 문자로 기록된 성경 번역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최근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영상 장치, 메모리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을 구연의 방식으로 번역, 보존 및 배포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술 문화는 최근 유튜브 등 영상 매체의 부흥과 더불어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큰 가능성을 지닌다. 메타언어와 언어 외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이 극대화된 미디어에서도 구술 문화는 재조명되고 있다.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및 구연가들이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성경 구연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은 한국 교회와 특히 젊은이들의 성경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1) 본 논문에서 논문 길이의 제한으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활용한 번역의 필요성 및 연구 흐름과 이

41) 예를 들면 필자가 접한 마가복음 구연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존스(Phil Ruge Jones)의 구연 유튜브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Phil Ruge Jones Storytelling: The Book of Mark”, <https://www.youtube.com/watch?v=JhqMmDhc0UU&t=2580s> (2020. 7. 31.). 이 밖에도 Academy for Biblical Storytelling Course에서 유튜브를 통해 올리는 다양한 구연 영상은 성서구연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엿보게 한다.

론을 제시할 뿐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활용한 실제 성경 번역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과 (2) 필자가 구약성서 연구자이지만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서 구약성서 연구자들의 활동이 신약성서 연구자들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까닭에 본 논문에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소개하면서 구약성서 연구자보다는 신약성서 연구자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구약성서, 특히 가장 퍼포먼스적 특징이 강한 시편 연구자인 필자는 후속 논문에서 구약성서 및 시편 연구가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아쉬운 점들을 보충할 것이며, 또한 여러 성서 및 퍼포먼스 연구자들과 함께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활용한 번역 작업을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Keywords)

성서 퍼포먼스 비평, 제임스 맥시, 성경 번역, 상황화, 구어성.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James A. Maxey, Bible Translation, contextualization, orality.

(투고 일자: 2020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궁켈, 헤르만, 『창세기 설화』, 진규선 역, 서울: 감은사, 2020.
- 권영주,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구술 이론과 기억 이론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5:4 (2018), 863-899.
- 김학철, “매체 환경 변화와 성서 번역”, 『신학논단』 87 (2017), 69-92.
- 방기민, “초기 이스라엘, 블레셋, 기후변화와 이주 – 지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의 사례”, 『지중해지역연구』 21:3 (2019), 1-33.
- 오홍식, “트로이 전쟁과 바다의 민족들”, 『서양고대사연구』 34 (2013), 107-143.
- 유지운, “<서평>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ed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성경원문연구』 42 (2018), 200-214.
- 유지운, “‘요한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퍼포머티브-내러티브 비평적 분석: ‘아버지’(πατήρ) 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2 (2016), 331-369.
- 정용한, “마가복음의 공연 비평적 읽기 - 백부장의 고백(막 15:39)을 중심으로 -”, 『대학과 선교』 35 (2017), 131-160.
- Becker, E.-M., *The Birth of Christian History: Memory and Time from Mark to Luke-Ac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 Bevans, S. and Schroeder, R., *Constants in Context: A Theology of Mission for Today*, Maryknoll: Orbis, 2004.
- Boomershine, T. E., “All Scholarship is Personal: David Rhoads and Performance Criticism”,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7:4 (2010), 279-287.
- Boomershine, T. E., “Mark, the Storyteller: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Mark’s Passion and Resurrection Narrative”,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at New York, 1974.
- Boomershine, T. E., *The Messiah of Peace: A Performance-Criticism Commentary on Mark’s Passion-Resurrection Narrativ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12, Eugene: Cascade, 2015.
- Bullard, R. A., “Looking in the Old Testament for the Epic Genre”, *The Bible Translator* 64:1 (2013), 99-111.
- Cline, E. H., *The Trojan Wa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Cline, E. H.,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 Turning Points in Ancient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Dewey, J.,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 Mark*,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8, Eugene: Cascade, 2013.
- Dickie, J. F., "Community Translation and Oral Performance of Some Praise Psalms within the Zulu Community", *The Bible Translator* 68:3 (2017), 253-268.
- Dickie, J. F., "The Importance of Literary Rhythm When Translating Psalms for Oral Performance (in Zulu)", *The Bible Translator* 70:1 (2019), 64-81.
- Doan, W. and Giles, T.,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London: T & T Clark, 2005.
- Fitzgerald, D., "Mediating the Apocalypse: The Potential Semiotic Effects of Translating for Spoken and Sung Performance",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31-245.
- Giles, T. and Doan, W.,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Religion Compass* 2:3 (2008), 273-286.
- Giles, T. and Doan, W. J., *The Naomi Story-The Book of Ruth: From Gender to Politic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13, Eugene: Cascade, 2016.
- Giles, T. and Doan, W. J., *Twice Used Songs: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Songs of Ancient Israel*,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 2009.
- Gonzalez, J. L., *Christian Thought Revisited: Three Types of Theology*, rev. ed., Maryknoll: Orbis, 1999.
- Hiebert, P. G.,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3 (1987), 104-112.
- Kelber, W. H., *The Oral and Written Gospel: The Hermeneutics of Speaking and Writing in the Synoptic Tradition, Mark, Paul, and Q*, Philadelphia: Fortress, 1983.
- Lenski, G.,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 Leslie, B., *One Thing I Know: How the Blind Man of John 9 Leads an Audience toward Belief*,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5.
- MacDonald, D. R., *Christianizing Homer: the Odyssey, Plato, and the Acts of Andr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Maxey, J.,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12-215.
- Maxey, J. A.,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2, Eugene: Cascade, 2009.
- Maxey, J., "Performance Criticism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Part I: Oral Performance and New Testament Studies", *The Bible Translator* 60:1 (2009), 37-49.

- Maxey, J., “Performance Criticism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Part II: Challenges and Experiences”, *The Bible Translator* 60:3 (2009), 165-182.
- Maxey, J. A. and Wendland, Ernst R., eds.,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 McCarter, Jr., P. K., “The Apology of Davi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489-504.
- Niditch, S., *Oral World and Written Wo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Perdue, L. G., *Proverb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20, Louisville: John Knox, 2000.
- Perry, P. 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urvey and Prospects”, *Religions* 10:117 (2019), 1-15.
- Perry, P. S., *Insights from Performance Criticism*, Insights: Reading the Bible in the 21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2016.
- Perry, P. S., *The Rhetoric of Digressions: Revelation 7:1-17 and 10:1-11:13 and Ancient Communication*, WUNT, 2. Reihe: 2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Rhoads, D. M., “Performance Criticism: an Emerging Methodology in Second Testament Studies”, *Biblical Theology Bulletin* 36:3 (2006), 118-133, 164-184.
- Rhoads, D. M. and Michie, D.,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2.
- Rhoads, D., Dewey, J., and Michie, D.,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 Schreier, R. J.,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Orbis, 1985.
- Schreier, R. J., “Defining Syncretism: An Interim Repor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7:2 (1993), 50-53.
- Sölle, D., *Thinking about God: An Introduction to Theology*, Philadelphia: Trinity, 1990.
- Tamez, E., “Sign Language, Performance, and Identity”, *The Bible Translator* 66:3 (2015), 258-263.
- Tamez, E.,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af Community”, 「성경원문연구」 20 별책 (2007), 112-119.
- Tamez, 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Costa Rican Sign Language”, 「성경원문연구」 20 별책 (2007), 120-128.

<Abstract>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James A. Maxey and His Contribution**

Ki-Min Bang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new paradigm of Bible Translation to the Korean church community. James A. Maxey who was a Lutheran Bible Translators missionary for more than twenty years in Cameroon suggests that Bible Translation may be performed better through oral performance and contextualization. This paper summarizes his idea and two crucial points, and evaluates them for Korean Bible translation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is paper discusses assumptions and problems in previous Bible Translations that ignore orality in the original text and target language context, especially in uncivilized countries and communities. Then it introduces a brief history of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s this emerging new discipline may still be unfamiliar to many in Korean scholarly societies. After that, two critical points of James A. Maxey's argument are discussed and appreciated.

The first important point in Maxey's work is that the community in the New and Old Testament had an oral culture.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were illiterate. Nevertheless, previous scholarship has often ignored the orality but focused on the literary understanding of the Bible. Maxey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orality for New Testament studies and for an African context of Bible Translation based on common arguments and contributions from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cholarly group. The second important point i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ization. Although there is some opposition to contextualization and syncretism, recent missiologists including Robert J. Schreiter and Steve Bevans argue that contextualization and inculturation are significantly necessary parts for Bible Translation and mission.

Maxey's two points may provide the Korean church community with many potential contributions and challenges together. His understanding of oral (including para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performance and Bible Translation may provide Bible translators with some fresh insights, improve Bible

Translation in the mission field, and also make younger Korean generation who prefer modern media over traditional written media have greater access to the Bible and its message. However, his points of contextualization and inculturation may still need some additional time to be accepted by the Korean church community, but are still worth trial for the marginalized communities such as the deaf and people with other disabilities.